

산내, 체육회장기 게이트볼 優勝

박종평(男) · 김순옥(女) 최우수 선수 수상

포천시가 지난 4일 포천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한 제2회 포천시체육회장기 게이트볼대회에서 산내(일동)가 우승을 차지했다.

역대 최다팀인 33개팀 2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한 이날 대회는 게이트볼의 보급과 활성화, 친목도모를 위해 마련됐다.

예선 선발 후 본선 팀별 대항전으로 치러진 이날 경기에서 대회 우승은 관인B팀을 18대 1로 이긴 산내(일동)팀이 차지했으며 포천 A와 개나리(소흘읍)는 각각 공동 3위에 올랐다.

그 밖에 영종A팀은 장려상, 소흘 B팀은 모범상, 초과A(관인면) 팀은 협동상을 각각 수상했다.

이날 대회의 최우수선수는 대회를 우승으로 이끈 박종평(산내·남) 선수가 김순옥(포천A·여)가 각각 선발됐다.

오병익 포천시게이트볼 연합회장은 "이번 대회가 건전한 게이트볼 보급과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대회



지난 4일 포천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한 제2회 포천시 체육회장기 게이트볼대회에 앞서 기념식에서 성기호(좌), 정남순 선수가 선수대표 선서를 하고 있다.

인 만큼 즐거운 마음으로 대회에 임해주길" 당부했다.

한편 오는 15일에는 포천종합운동장에서 연합회장기 게이트볼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포천 관내 14개 읍·면·동 중

내촌면, 이동면, 화현면, 신북면, 영북면 지역에는 게이트볼장이 분포하고 있지 않으며, 그 외의 지역에 총 18개 게이트볼장이 운영되고 있다.

지혁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소흘클럽 체육회장기 배드민턴 정상

엘리트 선수단에 각각 50만원씩 지원

소흘클럽(회장 이종욱)이 지난 6일 포천종합체육관과 포천중학교 체육관에서 개최된 제3회 포천시체육회장기 배드민턴 대회에서 우승했다.

소흘클럽은 3천950점으로 3천800점을 획득한 반월클럽과 3천700점을 차지한 초과클럽을 제치고 정상을 차지했다.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친목과 화합의 장을 통해 배드민턴의 보급과 활성화, 건강증진을 위해 마련된 이날 대회는 관내 11개팀(가산·반월·소흘·은광·은행·이동·일

동·제일·초가·포천·한마음클럽) 30대에서 70대 선수 345명이 참가했다.

한편 대회 기념식 앞서 배드민턴 연합회가 전통적으로 실시한 팀별 개성있는 입장식은 관람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주었으며, 입장상은 신생팀인 은광클럽이 수상했다.

또한 폐회식에서 배드민턴연합회는 관내 엘리트배드민턴 선수 지원을 위해 포천초와 포천여중, 포천고 배드민턴 선수단에 각각 지원금 50만원씩을 전달했다.

지혁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제3회 포천시체육회장기 배드민턴대회에서 입장상을 수상한 은광클럽 선수단이 기념식에 입장하고 있다.

“야구 동호인 하나로 뭉쳤다”

자이언츠 연합회장기 優勝



지난달 30일 포천고등학교에서는 포천시야구연합회장기 야구대회 시상식이 개최됐다.

포천시야구연합회(회장 장승호)가 주최한 제1회 포천시야구연합회장기 야구대회 초대 우승자가 가려졌다. 우승팀은 포천 자이언츠.

자이언츠 팀은 지난달 30일 포천고등학교 운동장에서 개최된 리그 마지막 최종 결승전에서 나이스팀을 꺾고 정상을 올렸다.

이번 대회는 관내 나이스야구단, 엘리펀츠야구단, 폭스야구단, 자이언츠야구단과 동두천 이담야구단, 연천 베이스볼메이아야구단 120여명이 출전한 가운데 지난 9월 25일부터 개최된 이번 연합회장기 야구

대회는 한 달여간 일요일마다 리그전으로 치러졌다.

대회 결과 우승은 자이언츠, 준우승은 나이스, 3위는 엘리펀츠가 각각 차지했으며, 각 팀에는 상장과 상배, 야구 볼이 상품으로 주어졌다.

대회 톱 MVP는 자이언츠 이석현 선수가, 각팀 MVP는 심태보(나이스), 김현봉(동두천 이담), 박석주(연천베이스메이아), 이정준(엘리펀츠), 이철우(폭스), 안중환(자이언츠) 선수가 올랐다.

지혁배 기자 94spice@hanmail.net

2005 포천 38선 하프마라톤대회 개최

포천시는 오는 13일 오전 9시 30분부터 포천시 이동면 5군단 화랑연병장에서 마라톤 동호인 등 2천여명이 참가하는 '2005 포천 38선 하프마라톤대회'를 개최한다.

포천지역이 갖추고 있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와 마라톤을 통한 건강증진 및 보급을 위해 마련되는 이번 대회는 포천시와 포천시체육회가 주최하며 포천시육상경기연맹과 전국마라톤협회가 주관한다.

하프와 10km, 5km로 개최되는

이번대회는 5군단에서 성동검문소 구간에서 실시되며, 하프는 성동검문소, 10km는 매운갈비점, 5km는 복지근무단을 반환점으로 치러진다. 대회 접수는 지난 7일까지 총 1천846명이 신청했으며,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문의 : 포천시청 주민자치과(031-538-2078).

지혁배 기자 94spice@hanmail.net

포천시체육회장기 수영대회

포천시수영연맹(회장 김중국)은 지난달 30일 소흘읍 청명스포츠클터 수영장에서 제3회 포천시체육회장기 수영대회를 개최했다.

유소년 수영선수의 발굴과 수영의 저변확대를 위해 마련된 이날 수영대회는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일반부 경기로 구분해 경영 7종목(자유형, 평영, 배영, 접영, 혼계영, 계영, 개인혼영)의 경합으로 치러졌다. 이번 대회는 읍·면·동 단체전에서 일동면이 우승을 차지한 가운데, 포천동과 소흘읍이 그 뒤를 이었다.

학생부 최우수선수는 각각 3관왕에 오른 심 완(남·일동중 3년)과 류미나(여·일동중 3년)가, 일반부 최우수상은 이용경(남·포천동)과 김글라라(여·선단동)이 선정됐다.

지혁배 기자 94spice@hanmail.net

갈월중 태권도 대회 强者

선단한국체육관, 갈월중, 일동중고 단체전 우승



'제11회 포천교육장배 제9회 협회장기 초·중·고 태권도 선수권대회'에서 갈월중 강 천 군이 선수대표 선서를 하고 있다.

포천시태권도협회(회장 조복현)은 지난달 29일 관내 초·중·고 60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11회 포천교육장배 제9회 협회장기 초·중·고 태권도 선수권대회'를 개최했다.

태권도 가족들간의 화합과 우정을 도모하고 포천시 태권도의 활성화를 위한 축제의 장으로 마련된

이번 대회는 포천교육청과 포천시태권도협회가 주최했다.

겨루기와 품새 각각 30개교 294명과 247개교 278명의 선수가 출전한 대회 각 부문 성적은 다음과 같다. ▶초등부 남자 1위 선단한국체육관, 2위 송우한국체육관, 3위 신북체육관 ▶초등부 여자 1위 선단한국체육관, 2위 용인대한국체육관, 3위 예일체육관 ▶중등부 남자 1위 갈월중학교, 2위 일동중, 3위 선단한국체육관 ▶중등부 여자 1위 갈월중학교, 2위 정무체육관, 3위 일동중학교, 2위 영북중학교, 3위 송우한국체육관.

한편 최우수선수는 초등부 백광훈·윤예진(선단초), 중등부 강찬과 남소리(갈월중), 고등부 신유진(일동중)이 선정됐다.

지혁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일동초등학교 수영부 제2의 도약

학교, 학부모의 전폭적 지원 속 수영부 재창단

일동초등학교(교장 김병준)는 지난달 31일부터 우수한 수영선수 발굴과 육성을 위해 수영부를 재설치, 싱크로나이즈와 경영 선수 육성을 위해 1학년과 2학년 학생 20여명을 선발해 육성하고 있다.

일동초등학교가 선발한 선수들은 싱크로나이즈와 경영선수들로 싱크로나이즈는 6명, 경영은 12명을 선발했다.

이 선수들의 지도는 현재 포천시수영연맹 부회장을 역임하고 대진대학교 스포츠과학부 강사로 출강하고 있으며, 현재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김민정 선수 등 다수의 국가대표 싱크로나이즈 선수들을 양성한 심유명(60) 코치가 맡았다.

심 코치는 1994년부터 일동초등학교에서 어린 학생들을 선발해 교육해 모두 30여명의 선수가 국가대표 등 선수로 활약하고 있다.

지난 3일 일동초등학교 수영부 싱크로나이즈 선수들이 훈련하고 있는 내촌면 베어스타운 실내수영장을 찾아 일동초등학교 수영부가 준비하고 있는 선수육성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심유명 코치에게 들었다.

이날 인터뷰 현장에는 김부영(2년), 김보경(2년), 박예지(2년), 양혜선(1년), 김하은(2년), 김현아(1년) 등 싱크로나이즈 선수들이 훈련하고 있었고, 일동초등학교 김병준 교장과 학부모

들이 찾아 선수들의 훈련장면을 지켜보고 응원하는 등 수영에 대한 열정을 찾아볼 수 있었다.

심 코치는 "몇 년간 일동초등학교는 수영뿐 아니라 모든 체육종목이 설 수 없을 만큼 불모지로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었다"며 "최근 학교와 학부모들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수영부 선수들을 모집하고 창단해 수영의 밝은 미래가 보이는 듯하다"고 밝혔다.

학생들이 훈련에 들어간 것은 이제 겨우 열흘.

학생들은 수영의 기초단계인 물장구부터 시작하고 있다.

심 코치는 "모든 운동이 그러하듯 수영은 신체의 발육상태가 좋고 몸이 유연한 유년 시절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며 "학생들과 학부모의 열의가 대단하다"고 말했다.

이어 "1, 2학년 시기는 선수들의 성과도가 매우 좋다"며 "초등학생은 4년까지 유년부로, 6년까지는 초등부로 활약할 수 있는데 이때부터 각종 대회에 출전, 다양한 임상경험을 통해 성취도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선발된 학생들은 1년 정도 훈련을 거쳐 기본기를 완벽하게 다진 뒤 각종대회에 참가할 것이며, 심 감독의 바람처럼 학생들이 훈련을 잘 소화해 우수선수로 성장한다면 머지않아 포천이 수영으로 알려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지혁배 기자 94spice@hanmail.net



김병준 교장, 심유명 코치, 김부영(2년), 김보경(2년), 박예지(2년), 양혜선(1년), 김하은(2년), 김현아(1년) 학생(좌부터)과 학부모(뒷열)들이 일동초등학교 수영발전을 다짐하고 있다.

안전한 전기사용은 여러분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합니다



◆변압기 절연유 실험

“전기안전은 믿음과 신뢰를 주는 경기북부전기안전관리공사에서 책임지겠습니다”

특급 전기점검 기술자 다수 확보

최첨단 전기점검 측정장비 보유

신속하고 철저한 서비스 보장



대표이사 안병호

전기신규신청과 전기 신·증설 공사 및 각종 대관업무 상담은 당사로 문의하세요



◆변압기 부하 점검